

# ‘연말정산 시즌’...올 자녀·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알아두면 좋은 절세 ‘꿀팁’

국세청 ‘미리보기’ 환급금 확인  
고향사랑기부·현월기부증 유용  
대중교통 공제율 40%→80%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은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내년 예상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국세청이 접속자 개인별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꿀팁’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남은 기간 소비 및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고민된다면 ‘25% 원

칙을 떠올리면 된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연간 총 급여액(상여·수당 포함)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연말정산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신용카드가 일반카드보다 결제 혜택이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혜택에 월별 한도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까지다. 이 한도를 넘어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금액의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등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이면 200만원이다.

‘기부금 공제’ 등 선행을 통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먼저 현월 시 증정되는 사은품 대신 기부를 선택하는 ‘현월 기부권’이 있다. 현월 기부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월 후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기부하는 제도다. 전월·현월·월소관(단종)의 경우 5000원이, 월소관(다종)의 경우 8500원이 기부된다. 기부한 현월 기부권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고향사랑 e음(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역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

는 답례품도 제공하니,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세액 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깎을 세금이 5만 원뿐이라면 10만원을 기부해도 5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기존 답례품 외 추가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김치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변경된 제도도 있다.

먼저 자녀 세액공제금액도 확대된다. 자녀가 한 명이면 기존대로 연 15만원이 공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상향된다.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 외에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고,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세제지원도 확대돼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된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도 변경됐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3일 7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실무강좌’를 개최한다. 연말정산 신고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해마다 바뀌는 개정사항 등을 설명한다. 강좌는 △과세표준 구간 변경 △자녀 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등 전년과 달라지는 항목들 중심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증이 제공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기아 PV5, 英 매체 ‘주목해야 할 차’ 선정

### 내년 출시 “다재다능 모듈러 형식”

기아는 최근 2025년 출시를 앞둔 PV5가 영국의 LCV(경상용차) 전문지 ‘왓 밴?(What Van?)’이 발표한 ‘왓 밴? 어워즈 2025’에서 ‘주목해야 할 차’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왓 밴? 어워즈는 영국의 저명한 LCV 전문 매거진 왓 밴?이 주관하고 LCV 부문 전반에서 독립적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주목해야 할 차 부문은 업계에 변화를 야기하거나 활력을 더하는, 심지어 영역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차량이 뽑힌다.

제임스 델러스 왓 밴? 에디터는 “다재다능한 모듈러 형식의 기아 PV5는 LCV 시장에 전동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의 LCV 시장 진입은 브랜드 사업 영역을 넓히는 획기적인 순간이며 중요한 산업 변화의 시점”이라며 “기아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춘 차량을 기반으로 상용차 비즈니스를 현대적

으로 재해석해 차별화된 이점을 제공할 것이며, 이번 수상을 통해 이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기아는 올해 1월 ‘CES 2024’에서 PBV를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자유로움과 유연성을 갖춘 맞춤형 설계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 제공은 물론 혁신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차량 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에 첫 중형 PBV인 PV5를 출시하고 PBV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박소영 기자

제 1149회 로토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8 15 19 21 32 36	3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6억1338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177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6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 광주 디자인기업·중기 우수 디자인, 국내외서 ‘호평’

### 美 CES 등서 7건 수상 ‘영예’

지역 기업들의 혁신적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8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지역 디자인기업,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들이 올해 미국 CES 등 국내외 공모전에서 7건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2024년 서남권 디자인 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에코피스㈜(대표 채인원)의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전시를 앞두고 CES 혁신상에 선정됐다.

오른디자인(대표 송현승)이 디자인한 에코피스㈜의 ‘힐링보트’는 도심 속 호수에 설치돼 시민들의 수상레저 활동과 함께 수질정화 기능을 갖춘 융복합 제품으로, 스마트 도시(Smart Cities) 분야에서 △기술력 △디자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힐링보트’는 2024 대한



지역 디자인기업,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들이 올해 미국 CES 등 국내외 공모전에서 7건을 수상했다. 사진은 오른디자인(대표 송현승)이 디자인한 에코피스㈜의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민국 굿디자인(GD) 선정, 핀업 디자인어워드 본상 수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

㈜디자인바이(대표 최태욱)가 디자인한 ㈜나눔테크(대표 최무진)의 자동 심장 충격기가 2024 굿디자인 어워드 은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그린토크(대표 손영국)의 골프퍼팅 매트 △㈜에코프랑(대표 조종환)의 하수악취저감 스마트시스템 제품 디자인이 GD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마하디자인랩(대표 허준영)이 디자인한 마마숲(대표 김나연)의 모듈형 가구 ‘꿈꾸는 나의 동굴’도 핀업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국내 및 해외 어워드 수상은 지역 디자인의 세계적인 디자인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며 “혁신적 디자인을 앞세워 글로벌 마케팅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 금감원 Q&A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어 유의하길 바란다.

**문**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란 무엇인가.

**답**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해 법인은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지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차익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내부자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자주 발생하거나,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다.

**문** CB와 BW를 사고 보통주를 팔았는데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나.

**답**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중

**문** 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며,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

한다.

**문**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나.

**답**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문** 임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도 단기매매차익인가.

**답**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여부 한 시점에 임직원이라면 차익 반환 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

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된다.

**문** 매수한 다음 매도한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나.

**답** 아니다. 특정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한다.

**문** 거래기간 중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답**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인가.

**답** 스톡옵션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매매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http://www.fss.or.kr>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